

♠ **신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 **인천번제헌금**

♠ **윤희정**

48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시 편 38편 1절 ~ 22절		
월요일	시 편 39편 1절 ~ 13절	목요일	시 편 41편 1절 ~ 13절
화요일	시 편 40편 1절 ~ 10절	금요일	전도서 1장 1절 ~ 11절
수요일	시 편 40편 11절 ~ 17절	토요일	전도서 1장 12절 ~ 18절

2022. 11. 27.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

읍기 12장 1~12절

설교: 이진우 목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때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불의하고, 악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랑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에 그 때를 기다리며 더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모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본론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1.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음이 재앙을 당해 어려움에 처하자 그의 친구들은 음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오히려 그를 정죄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음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음이 죄를 지은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원론적 진리, 즉 인과응보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의인이라고 항상 평안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항상 재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의인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악인들이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은 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재앙을 만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반면, 감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탄식합니다. 혹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환난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 형통과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의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의인에게 환난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악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교만의 극지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성인 지혜와 뜻을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이 다 헤아려 알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지혜와 열철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의 응답이 없고 말씀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2.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나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극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욕을 높이실 것이고, 무지함으로 욕을 비난하던 자들은 정죄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도가 마땅히 삼가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반면에,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 가운데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함으로 범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의인이 환난 중에 죽임을 당하고 악인이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공의로 선 악 간에 심판할 것이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SINCE 1975

No. 48 - 49

2022. 12. 0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